

거제 앞바다서 또 벙커C유 유출

400톤 실은 유조선과 예인선 충돌 ... 경비정 4척 동원 방제작업

거제 앞바다에서 또 다시 벙커C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오일뱅크가 대산항에서 벙커C유 유출한 지 한 달 남짓 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안전불감증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월5일 오전 2시20분경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대병대도 인근 해상에서 벙커C유 400톤 가량을 실은 유조선이 예인선과 충돌해 기름이 바다로 유출됐다.

해경 관계자는 “예인선이 유조선의 좌측 중앙부분과 충돌하면서 저장탱크에 구멍이 났다. 선원들이 즉시 기름을 다른 탱크로 옮겨 담아 유출량이 많지는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해경은 경비정 4척을 동원해 방제작업을 벌이는 한편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기름 유출량과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2/05>